

KOSDAQ | 식품과기본식료품소매

CJ프레시웨이 (051500)

키친리스 사업과 O2O전략에 대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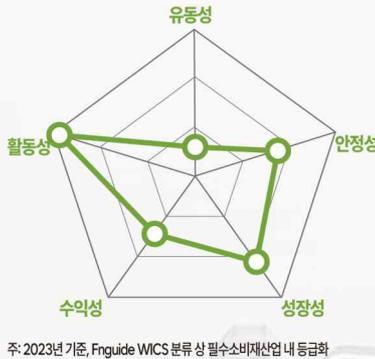
체크포인트

- 식자재유통과 푸드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 투자포인트는 1) 지속적인 매출 증가 및 2) 시대 변화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O2O전략에 대한 기대
- 동사의 2024년 매출액 3조 1,839억원(+3.6%YoY), 영업이익 949억원(-4.4%YoY), 영업이익률 3.0%(-0.2%pYoY)로 추정. 2024년 PER은 6.6배로 2020년 이후 밸류에이션 중하단 위치
- 리스크 요인은 외식식자재 유통 사업 부문 매출액 감소 지속 개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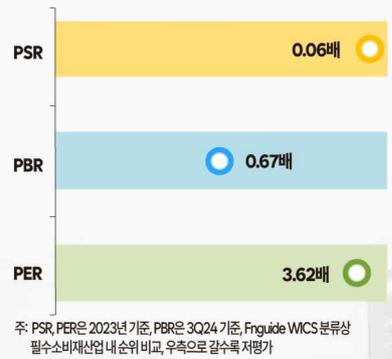
주가 및 주요이벤트



재무지표



밸류에이션 지표



Analyst 김태현 thkim@kirs.or.kr
RA 변해민 goals101999@kirs.or.kr

식품과기본식품소매

식자재유통과 푸드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동사의 매출액은 1) 식자재유통(73.5%, 2024년 3분기 누적 기준), 2) 푸드서비스(24.7%)와 3) 해외 및 기타(1.8%)로 구성

투자포인트1. 지속적인 매출 증가 기대

CJ프레시웨이의 2023년 매출액은 3조 742억원으로 전년대비 11.9% 증가. 2015년부터 지난 8년간 연평균 5.1% 성장. 올해도 3.6% 증가 예상. 푸드서비스 사업부문이 매출액 증가 견인 중. 푸드사업부 매출액은 2017년 3,620억원에서 2023년 7,261억원까지 연평균 13.0% 증가. 올해도 9.3% 성장 예상. 내년에도 1) 2022년 수주한 대형사의 영업 개시와 2) 올해 의료파업에 따른 병원급식의 기저효과와 2차 병원 중심의 신규 수주전략으로 성장세 유지할 전망. 중기적으로는 키친리스 사업이 성장의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키친리스 서비스는 1)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비스 대상을 기존 대비 확대할 수 있고, 2) 도시락 형태 등으로 제공 시 CJ프레시웨이의 센트럴키친에서 한꺼번에 조리해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력 및 비용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도 제고 가능. 키친리스 사업이 올해 푸드서비스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 수준

투자포인트2. 시대 변화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O2O전략

동사는 외식 식자재 유통 분야에서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고, 강점인 업계 최대 규모의 유통망과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존의 오프라인 B2B식자재 유통사업을 O2O(Online to Offline) 사업으로 전환 중. 올해 6월부터 OKPOS의 식당 매출관리 서비스 앱(APP) '오늘얼마' 내 식자재 주문 페이지를 통해 상품판매를 시작. 차별화된 물류 인프라 활용해 배송에 강점 보유한 동사는 조만간 물류 대행업도 시작할 예정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20	2021	2022	2023	2024F
매출액(억원)	24,785	22,914	27,477	30,742	31,839
YoY(%)	-18.9	-7.5	19.9	11.9	3.6
영업이익(억원)	-35	556	978	993	949
OP 마진(%)	-0.1	2.4	3.6	3.2	3.0
지배주주순이익(억원)	-393	267	491	545	306
EPS(원)	-3,307	2,245	4,136	4,589	2,581
YoY(%)	적전	흑전	84.2	11.0	-43.8
PER(배)	N/A	12.8	7.7	5.2	6.6
PSR(배)	0.1	0.1	0.1	0.1	0.1
EV/EBITDA(배)	11.3	6.6	5.2	3.9	3.3
PBR(배)	1.2	1.4	1.2	1.0	0.5
ROE(%)	-20.2	12.3	17.7	18.2	9.2
배당수익률(%)	0.0	1.0	1.1	1.9	2.7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12/12)	17,070원
52주 최고가	27,150원
52주 최저가	15,820원
KOSDAQ (12/12)	683.35p
자본금	119억원
시가총액	2,026억원
액면가	1,000원
발행주식수	12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2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3억원
외국인지분율	13.17%
주요주주	CJ 외 3인 4.781%
	EFG PRIVATE BANK SA 10.95%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0.5	-20.4	-30.2
상대주가	3.5	1.4	-14.2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이자보상배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영업이익률', 활동성지표는 '총자산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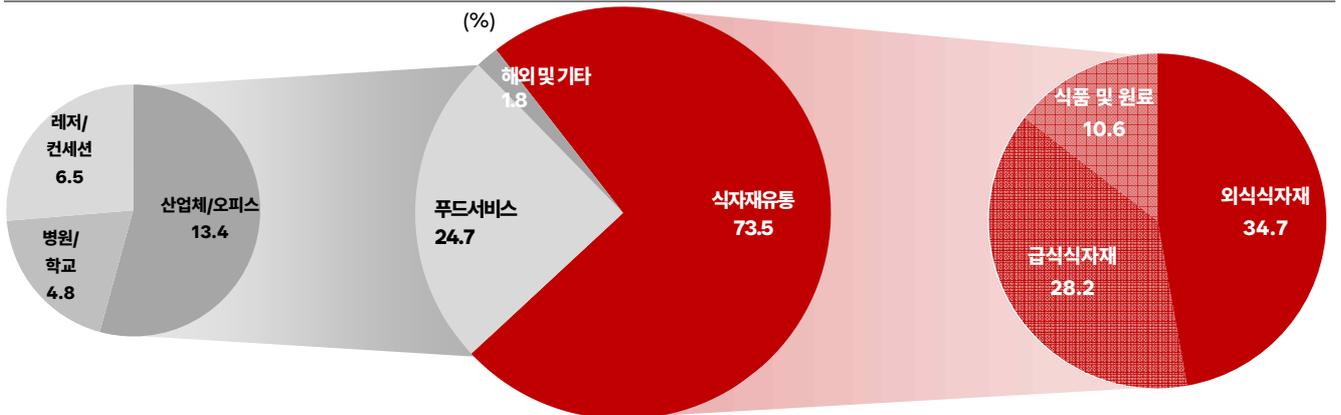
1 연혁

CJ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과 푸드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

CJ프레시웨이는 CJ그룹 내 기업으로 식자재 유통과 푸드서비스(단체 급식)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당사는 체계적인 유통 시스템을 바탕으로 식당대리점, 급식업체, 체인레스토랑, 일반식당, 호텔 등에 농, 수, 축, 가공식품부터 주방소모품 등 식당사업에 필요한 모든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상품 공급 뿐만 아니라 메뉴, 조리, 서비스, 위생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다. 즉, 식자재 유통 경로별로 특화된 맞춤 식자재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당사는 식자재 유통 경로를 1) 외식 식자재, 2) 급식 식자재와 3) 식품 및 원료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1994년 CJ그룹 단체급식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푸드서비스 사업은 급식 및 브랜드 강화 등의 사업전략 다변화를 시도하며 해오고 있다. 이 외 식품, 식품 첨가물, 조미식품, 드레싱 등의 개발,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 등 기타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트렌드 변화에 발맞추어 온라인 채널을 통한 식자재 판매와 키친리스 푸드서비스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당사의 매출액은 1) 식자재유통(73.5%, 2024년 3분기 누적 기준), 2) 푸드서비스(24.7%)와 3) 해외 및 기타(1.8%)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식자재 유통은 1) 외식식자재(34.7%), 2) 급식식자재(28.2%)와 3) 식품 및 원료(10.6%)로 구분되며, 푸드서비스는 운영 경로에 따라 1) 산업체/오피스(13.4%), 2) 병원/학교(4.8%)와 3) 레저/컨세션(6.5%)로 나눌 수 있다.

CJ프레시웨이의 매출액 구성



주: 2024년 3분기 누적 매출액 기준, 자료: CJ프레시웨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연혁: 1988년 설립, 200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

CJ프레시웨이는 1988년 10월 삼일농수산물로 설립되었으며, 2001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1996년 제일제당계열에 편입된 당사는 1999년 국내 대기업 최초로 식자재 유통 사업에 진출했다. 2000년에는 제일제당 단체급식 사업을 인수하고 식자재 전문 브랜드 '이츠웰'을 출시했다.

코스닥 상장 직후 2003년에는 업계 최초로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제를 시행하고, 2005년에는 ISA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국제 표준) 인증을 취득했다. 2008년에는 사명을

CJ프레시웨이로 변경하고, 그 이듬해에는 지역 상생 식자재 유통 모델 ‘프레시원’을 설립했다. 2010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저온물류센터인 이천통합물류센터를 오픈했다.

2012년에 1차상품(농수축산) PB상품인 ‘FRESHWAY’를 론칭한 동사는 2016년 조미식품 전문회사 송림푸드를, 2019년에는 농산물 전처리 전문업체 제이팜스, 제이앤푸드를 인수했다. 2019년에는 영남권 최대 자동화 물류센터 동부RDC를 가동하고 B2B 육류 직거래 플랫폼 미트솔루션을 오픈했다. 2020년에는 센트럴키친 중부센터를 가동했다.

CJ프레시웨이의 주요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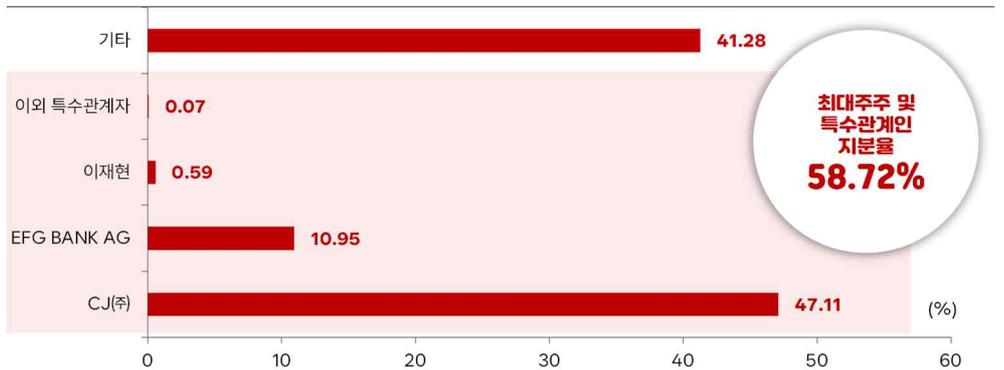
자료: CJ프레시웨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주 구성 및 종속 회사

CJ프레시웨이의 최대주주는 CJ(주)로 지분율 47.11% 보유 중

2024년 9월말 기준으로 CJ프레시웨이의 최대주주는 CJ(주)로 지분율 47.11%를 보유하고 있다. 이 외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율은 11.61%이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한 지분율은 58.72%이다. 특수관계인으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지분율 0.59%), EFG BANK AG(10.95%), 안승준 CJ푸드빌 경영리더(0.02%)와 이건일 CJ프레시웨이 대표이사(0.05%)가 있다.

CJ프레시웨이의 주주 구성



주: 2024년 9월말 기준, 자료: CJ프레시웨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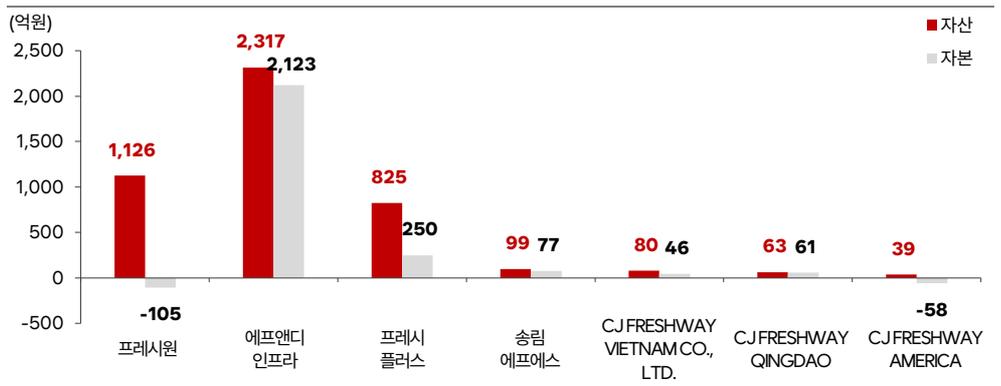
CJ프레시웨이의 종속 기업으로는 1) 프레시원(지분율 100%, 2024년 9월말 기준), 2) 에프앤디인프라(100%), 3) 프레시플러스(100%), 4) (주)송림에프에스(지분율 100%), 5) CJ FRESHWAY VIETNAM CO., LTD(100%), 6) CJ FRESHWAY AMERICA CORPORATION(100%), 7) CJ FRESHWAY QINGDAO CORPORATION(100%)와 8) 마그나 X CJ프레시웨이 시너지펀드(90.91%)가 있다.

CJ프레시웨이 지배구조 현황



주: 2024년 9월말 기준, 자료: CJ프레시웨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CJ프레시웨이 종속회사 자산 및 자본 현황



주: 2024년 9월말 기준, 자료: CJ프레시웨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종속회사:

- 1) 프레시원
- 2) 에프앤디인프라
- 3) 프레시플러스
- 4) 송림에프에스
- 5) CJ FRESHWAY VIETNAM CO., LTD
- 6) CJ FRESHWAY AMERICA CORPORATION
- 7) CJ FRESHWAY QINGDAO

프레시원은 식자재 유통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종속회사이다. 프레시원강남, 프레시원광주, 프레시원남서울, 프레시원중부, 프레시원동서울, 프레이원대구경북, 프레시원부산 등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올해 6월 프레시원강남이 프레시원 6개 자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사명을 프레이원으로 변경했다. 이는 CJ프레시웨이가 자회사 통폐합을 통해 비용 효율화를 통한 재무개선 효과를 누리고 자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이다. 참고로, CJ프레시웨이는 전국 물류가 필요한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동사가, 지역에 거점을 둔 소규모 외식브랜드나 업체들은 프레시원을 통해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2024년 9월말 기준으로 프레시원의 자산 규모는 1,126억원이며, 자본 잠식 상태이다. 상대적으로 매출액 규모가 컸던 자회사는 프레시원(前 프레시원강남)(2023년 매출액 1,582억원)과 프레시원남서울(1,098억원)이었다. 프레시원의 2024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2,026억원이며, 81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CORPORATION

**8) 마그나 X CJ프레시웨이
시너지펀드**

에프앤디인프라는 2016년에 설립되었으며, 식자재유통부문 물류센터를 소유하며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종속회사이다. 2024년 9월말 기준 자산과 자본 규모는 각각 2,317억원과 2,123억원이다. 올해 11월 CJ프레시웨이는 에프앤디인프라를 흡수합병했다.

프레시플러스와 송림에프에스는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속회사이다. 프레시플러스는 1999년 송림식품으로 설립되었으며, 2016년에 CJ프레시웨이에 인수되었다. 이후, 농수산 전처리 전문회사인 제이팜스와 합병하며 2023년 프레시플러스(주)로 사명이 변경되었다. 조미식품제조 전문회사로 67종류의 음식을 제조하고 있으며, 제조하는 식품은 소스류, 드레싱류, 액기스&향미유, 시즈닝, 즉석조리식품과 OEM제품이다. 현재 공장은 공주에 위치하고 있다. 2024년 9월말 기준 자산과 자본 규모는 825억원, 250억원이다. 2024년 9월 누적 매출액은 56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7% 증가했다. 송림에프에스도 조미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4년 9월말 기준 자산과 자본 규모는 99억원, 77억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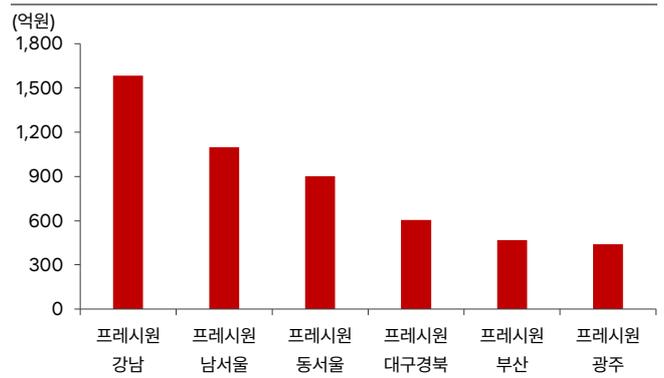
CJ FRESHWAY VIETNAM CO., LTD(베트남), CJ FRESHWAY AMERICA CORPORATION(미국)과 CJ FRESHWAY QINGDAO CORPORATION(중국)은 식자재유통업을 영위하는 해외법인으로 중국 법인은 2012년에 미국과 베트남 법인은 2013년에 설립되었다. 해외법인들의 2024년 9월 누적 합계 매출액은 18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0.4%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률도 5%로 전년동기대비 1%p 상승했다.

프레시원 매출 및 당기순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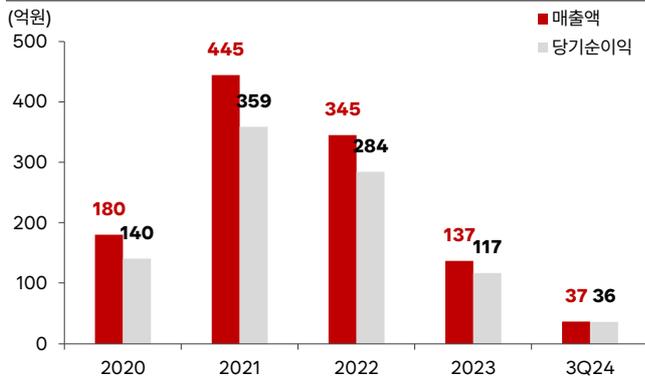
주: 2024년 6월 프레시원강남이 프레시원 6개 자회사 흡수 합병, 2024년은 3분기 누적 기준
자료: CJ프레시웨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프레시원 지역법인별 2023년 매출액



자료: CJ프레시웨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에프디인프라 매출 및 당기순이익 추이



주: 2024년은 3분기 누적 기준
 자료: CJ프레시웨이,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프레시플러스 매출 및 당기순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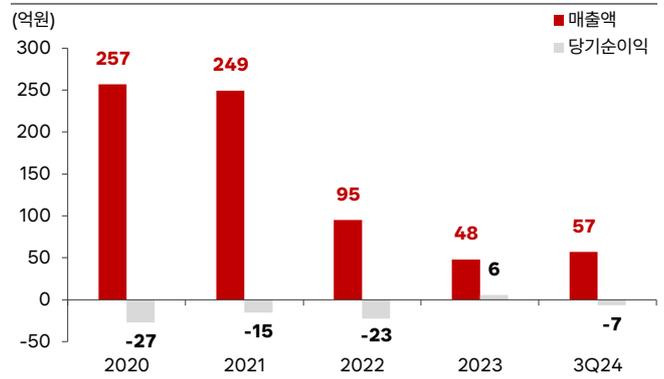
주: 2023년 3월 제이팜스와 합병, 2024년은 3분기 누적 기준
 자료: CJ프레시웨이,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송림에프에스 매출 및 당기순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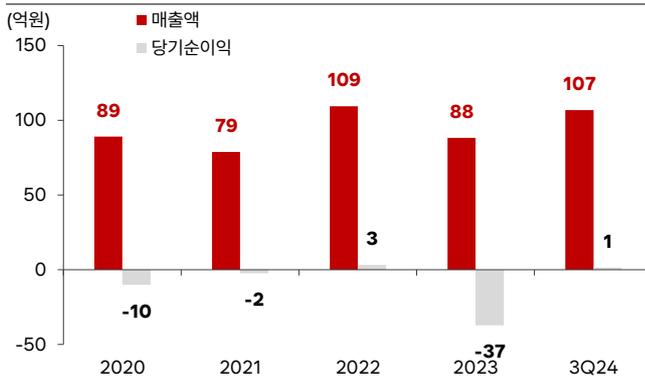
주: 2024년은 3분기 누적 기준
 자료: CJ프레시웨이,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CJ FRESHWAY VIETNAM CO., LTD. 매출 및 당기순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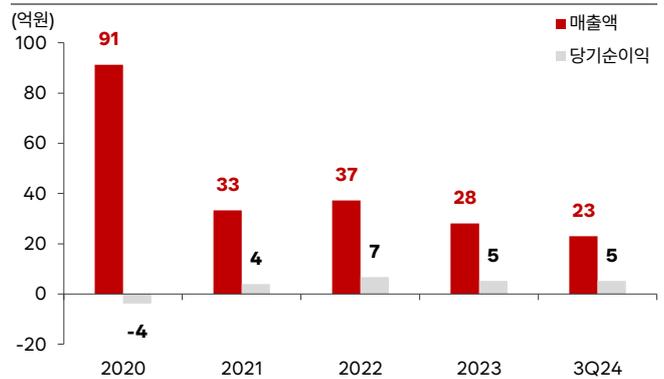
주: 2024년은 3분기 누적 기준
 자료: CJ프레시웨이,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CJ FRESHWAY AMERICA CORPORATION 매출 및 당기순이익 추이



주: 2024년은 3분기 누적 기준
 자료: CJ프레시웨이,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CJ FRESHWAY QINGDAO CORPORATION의 매출 및 당기순이익 추이



주: 2024년은 3분기 누적 기준
 자료: CJ프레시웨이,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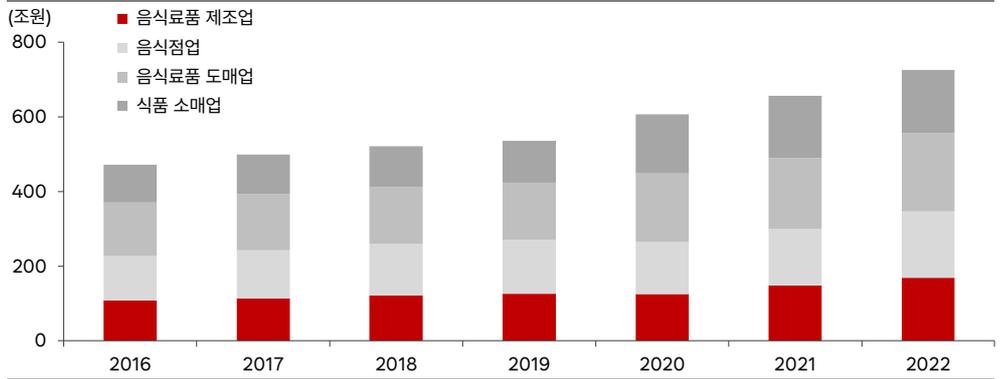
**CJ프레시웨이는
식품 산업에 속함**

**2022년 기준 국내 식품 시장은
346조원**

CJ프레시웨이는 식품 산업에 속해 있다. 당사는 식자재 유통과 단체급식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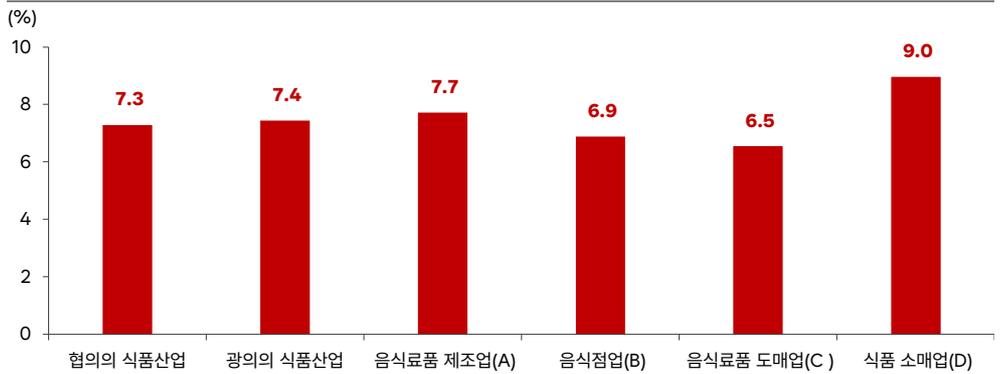
2022년 기준으로 국내 식품시장은 346조원이다. 이는 음식료품 제조업과 음식점업만 고려한 협의의 개념으로, 2016년 이후 6년간 연평균 7.3% 성장했다.(2016년부터 국내 식품산업 시장 규모 산정 시 전국사업체 조사 자료 활용)음식료품 제조업과 음식점업은 각각 169조원과 177조원이다. 광의의 국내 식품시장은 식품 유통업(음식료품 도매업+식품 소매업)을 포함한 수치로 22년 기준 725조원이다.

국내 식품산업 시장 규모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식품산업 연평균 성장률



주: 2016~2022년 6년간 기준, 협의의 식품산업은 A+B, 광의의 식품산업은 A+B+C+D,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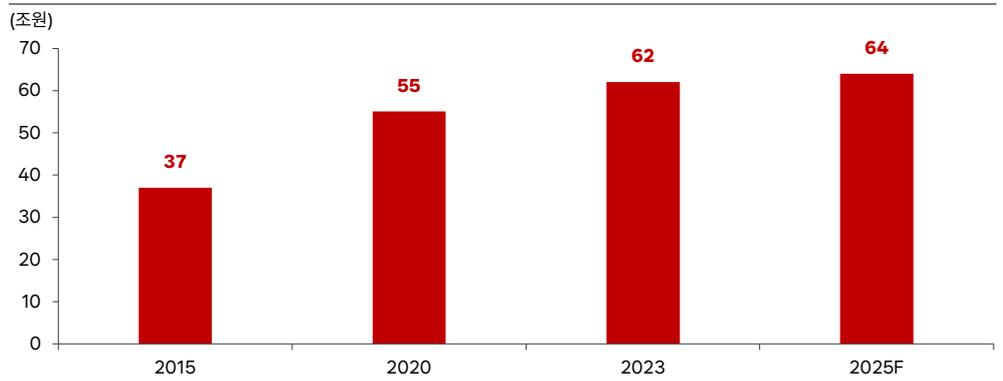
**2025년 B2B 식자재 유통시장
규모는 64조원으로 추정**

CJ프레시웨이 매출액의 73.5%(2024년 3분기 누적 기준)를 차지하는 식자재 유통과 관련되어 현재 국내에서는 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부재한 상황이다. 학계에서는 식자재 유통산업을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사용해 제조한 식품 재료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쓰이는 식자재 유통 산업 범위 기준은 일반 가정을 제외한 곳, 즉, 일반식당, 구내식당,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업자, 식품 제조업자, 기타 도매업자를 고객사로 둔다는 점이다. 즉, 식자재를 B2B로 제공하는 산업을 식자재 유통산업이라 정의하는 것이다. 다만,

최근에는 대형 식자재 유통기업들이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밀키트나 식자재 등을 공급하면서 이와 같은 정의도 모호해지고 있다.

국내 식자재 유통산업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다만, 현재 관련하여 대략적인 시장 규모를 공개하는 곳은 한국식자재유통협회이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 B2B 식자재 유통시장 규모는 2015년 37조원, 2020년 55조원, 2023년 62조원으로 추산했다. 지난 8년간(2015년~2023년) 연평균 6.7% 증가한 것이며, 2025년에는 6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 B2B 식자재 유통시장 55조원 중 기업형 식자재 유통 규모는 약 5조원으로 추정된다.

국내 식자재 유통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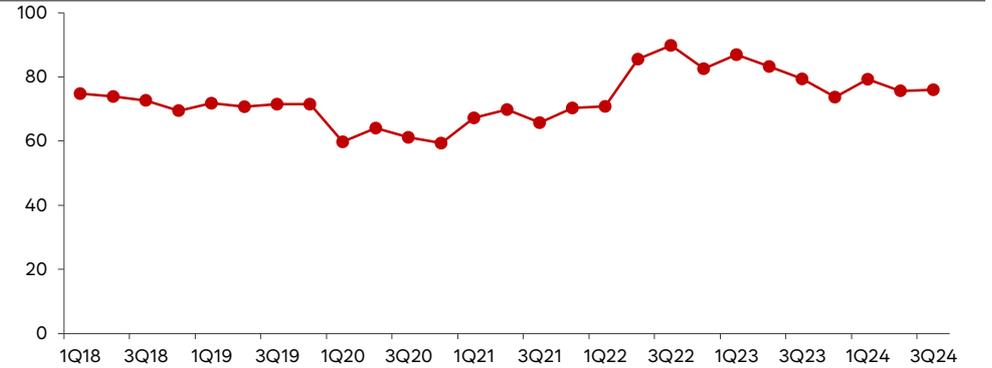
자료: 한국식자재유통협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식자재 유통업의 마진율은 낮은 편. 2018년을 기점으로 식자재 유통업자들은 제조영역으로 사업 확장

식자재 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원물의 취득 가격 경쟁력 및 품질 관리, 빠르고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에 의해 좌우된다. 통상 이는 식자재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막대한 고정비와 변동비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낮은 마진율을 감수할 수 밖에 주요인이었고, 비즈니스 효율화 이슈와 사업의 영속성은 항상 고민거리였다. 이와 같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을 기점으로 주요 식자재 유통업자들은 제조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현대그린푸드는 실버 및 케어급식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성남에 600억원 규모의 스마트푸드센터를 설립했고, 아워홈도 2009년 지은 센트럴키친 공장(중앙 공급형 주방으로 원재료 수급, 손질, 조리 과정을 거친 후 반조리 또는 완전 조리한 음식을 각 공급처에 납품하는 공장)을 증설했다. 이와 같은 제조라인으로의 사업 확장을 통해 식자재 유통업체는 전방 산업에서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면서 마진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체 시장에서 외식업에 공급하는 식자재 비중을 70%, 급식용 식자재 비중을 25%로 보고 있다. 이에 식자재유통산업의 성장에 전방산업인 외식업이 중요하다. 2022년 기준으로 외식산업(음식점 및 주점업)의 매출액은 177조원이며 전년 대비 17.5% 고성장했다. 2018년 이후 4년간 외식산업은 연평균 6.4%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금리와 내수 경기 부진으로 외식산업은 고전하고 있다. 2024년 3분기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는 76.04이고, 2024년 4분기 외식산업 경기지수(전망)은 83.65이다. 2022년 평균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는 82.2였다.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는 외식산업의 성장과 위축 정도에 대해 종사자들의 판단, 예측의 변화 추이를 측정하여 산업 경기동향을 분기별로 보여주는 체감 지표로, 지수는 50~150 사이의 값을 가진다. 기준치는 100이며 100 초과는 성장, 100 미만은 위축을 의미한다.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2년 기준 국내 단체급식 시장 규모는 16조원으로 추산

단체급식 사업 부문은 CJ프레시웨이 매출액의 24.7%(2024년 3분기 누적 기준)을 차지한다. 국내 급식 시장은 주로 기업체, 학교, 병원, 군부대 등에 제공되는 단체 급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급식학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국내 단체급식 시장 규모는 16조원으로 추산된다. 또한 2020년 기준으로 1일 급식 이용인원은 약 1,700만명으로, 국민 3명 중 1명은 급식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에 위축되었던 국내 급식 시장은 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기업급식과 학교 급식을 중심으로 다시 확대되고 있다. 급식 시장은 1) 직원 복지를 중시하는 기업 문화의 확산과 2) 학교 무상급식 정책 확대 및 3) 병원, 군부대, 복지시설 등 공공분야에서 급식 운영 강화에 힘입어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체급식은 전통적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대규모 식수가 보장되는 사이트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산업화 시대에는 자동차, 조선 등을 중심으로 위탁급식 산업이 발전해 왔다. 그러나 근래에는 과거 대비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대규모 사업장을 수주할 수 있고, 안정적 수주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상위업체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단체 급식 업계 빅 3로는 CJ프레시웨이, 삼성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다.

투자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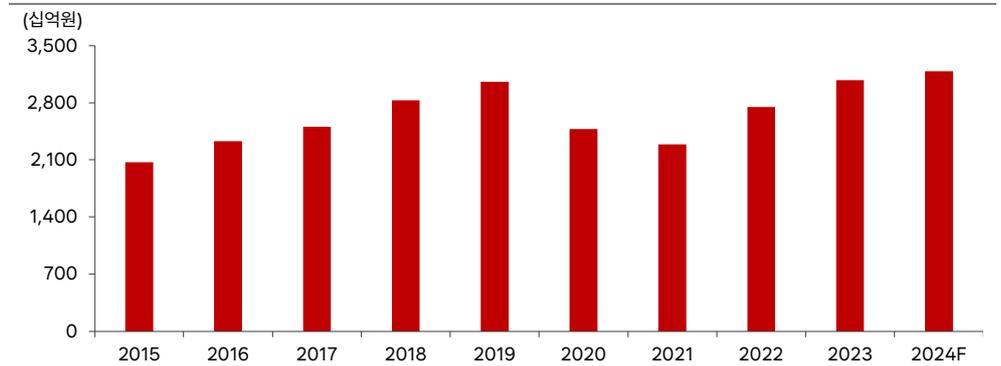
1 지속적인 매출액 증가 기대

투자포인트1. 지속적인 매출 증가 기대

CJ프레시웨이의 첫번째 투자포인트는 지속적인 매출액 증가 기대이다.

CJ프레시웨이의 2023년 매출액은 3조 742억원으로 전년대비 11.9% 증가했다. 2015년에 2조 724억원이었던 동사의 매출액은 지난 8년간 연평균 5.1% 증가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매출액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과 2021년 각각 18.9%, 7.5% 감소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2022년과 2023년 19.9%, 11.9% 증가했다. 매출 증가세는 올해도 이어가며, 3.6% 증가할 전망이다.

CJ프레시웨이의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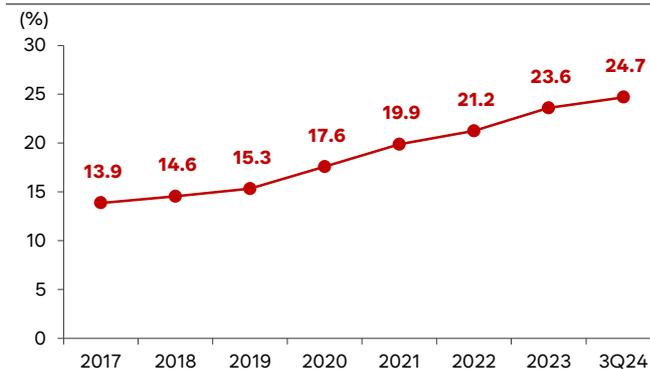


자료: CJ프레시웨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푸드서비스 사업부가 매출액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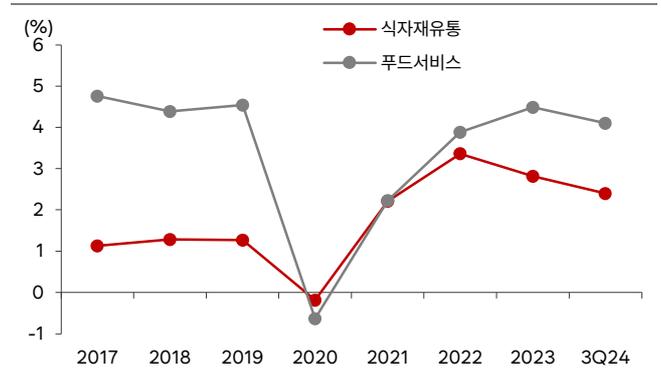
CJ프레시웨이 매출액 증가를 견인하는 사업부는 푸드 서비스, 즉 단체급식이다. 현재 푸드서비스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24.7%이지만, 식자재유통업 대비 수익성이 높다는 점에서 동사의 Cash Cow 역할을 하고 있다.

푸드사업부문 매출액의 총 매출액에서의 비중 추이



주: 2024년은 3분기 누적 기준, 자료: CJ프레시웨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CJ프레시웨이의 사업부문별 영업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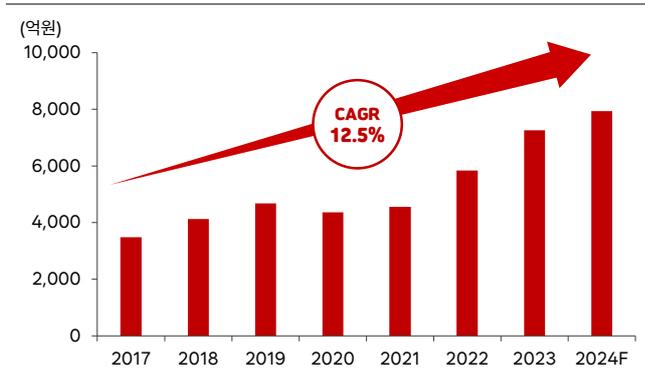


주: 2024년은 3분기 누적 기준, 자료: CJ프레시웨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내년에도 푸드서비스 매출액은
2022년 수주한 대형사의 영업
개시와 2차 병원 중심의 신규 수주
전략으로 성장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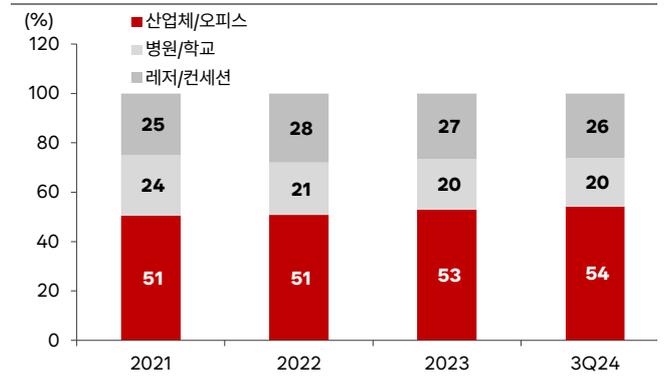
푸드사업부 매출액은 2017년 3,620억원에서 2024년 7,935억원까지 연평균 12.5%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 직후 2020년 9.2% 감소했던 매출액은 다음해인 2021년 4.3% 증가하며 회복세로 곧 돌아섰으며 리오프닝과 수주 경쟁력 강화로 2022년과 2023년에는 20% 넘게 고성장했다. 올해에도 9.3% 증가하며 매출액 성장을 견인할 예상이다. 이와 같은 매출 성장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1) 2022년에 수주한 대형사의 영업 개시와 2) 올해 의료파업에 따른 병원 급식의 기저효과와 2차 병원 중심으로 한 신규 수주전략 때문이다. 다만, 동사가 올해 수익성 개선을 위해 레저/컨세션 수주 물량을 줄이는 등 선별적 수주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개연성은 있다.

푸드사업부문 매출액 추이



자료: CJ프레시웨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푸드사업부문 경로별 매출 비중



자료: CJ프레시웨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중기적으로는 키친리스 전략이
성장에 기여할 전망.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키친리스 사업이
푸드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 수준까지 증가할 전망**

또한, 중기적으로 동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키친리스 전략이 동사 푸드서비스 매출액 성장에 기여할 전망이다. 키친리스 사업은 구내 식당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곳에 이동식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간편식 자판기를 설치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푸드 서비스 사업이다.

키친리스 푸드서비스의 경우 1)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비스 대상을 기존 대비 확대할 수 있고, 2) 도시락 형태 등으로 제공 시 CJ프레시웨이의 센트럴키친에서 한꺼번에 조리해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력 및 비용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도 제고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키친리스 사업장의 경우 카페나 스낵픽(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다양한 간식, 간편식 제공)이 같이 들어가 추가적인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2021년말 처음 선보인 스낵픽의 성장세는 가팔라서 작년 기준 매출액이 638억원을 기록했으며, 푸드서비스 매출액의 8.8%를 기록했다. 고객들의 호응도가 높은 스낵픽의 경우, 기존 단체급식장에도 추가 설치되고 있다. 키친리스 전략에 기반해서 동사는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조식 및 중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요양원에 급식을 제공하며 고객층을 다변화하고 있다.

실제 키친리스 사업이 푸드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5%에서 2023년 9%로, 올해 3분기 누적기준으로 11%수준까지 증가했다.

식자재 유통 중 급식식자재 유통 매출액도 동사의 지속적인 매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23년 급식식자재 유통 서비스 매출액은 8,489억원으로 전년 대비 26.5% 증가했다. 올해에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9%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고물가로 인해 외식보다는 내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내년에도 급식식자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개연성이 높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 대상의 복지시설 및 요양원으로서의 급식 수요 증가가 예상되기에, 이 경로에서 선두적인 위치에 있는 동사의 수혜가 기대된다. 올해 3분기 누적기준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 경로로의 급식 식자재 유통 서비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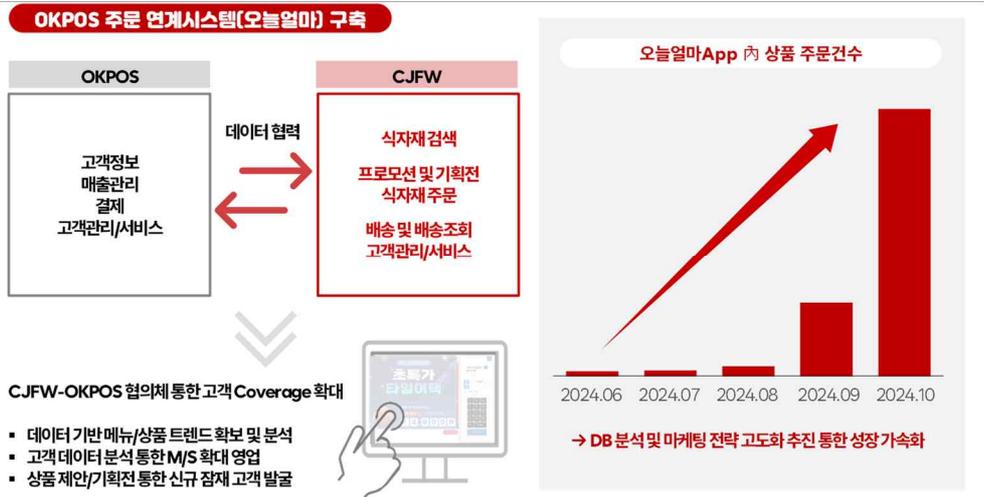
사대 변화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O2O전략

투자포인트2. O2O전략에 대한 기대. 이는 외식식자재 유통분야에서 시행

CJ프레시웨이의 두번째 투자 포인트는 O2O전환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식자재 유통 사업부분, 특히 외식식자재 유통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다. 동사는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고, 동사의 강점인 업계 최대 규모의 유통망과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존의 오프라인 B2B식자재 유통사업을 O2O(Online to Offline)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를 위해 CJ프레시웨이는 포스(POS)솔루션 기업인 OKPOS와 협업 모델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동사는 올해 6월부터 OKPOS의 식당 매출관리 서비스 앱(APP) '오늘얼마' 내 식자재 주문 페이지를 통해 상품판매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외식업체 고객들에게 온라인으로 1) 식자재를 검색, 주문 및 2) 주문한 식자재의 배송조회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OKPOS와 데이터 협력을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에 기반해 상품 큐레이션, 프로모션 기획, 고객 관련해 영업과 마케팅을 병행하고 있다. Test기간으로 6~9월까지 미미했던 '오늘얼마' 앱을 통한 상품 주문건수는 10월부터 급증하고 있다. CJ프레시웨이는 O2O전환과 동시에 고객들과 상생하기 위한 방안도 고민 중이다. 이의 일환으로 고객 사업 컨설팅인 외식솔루션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OKPOS 주문 연계시스템 '오늘얼마'



자료: CJ프레시웨이,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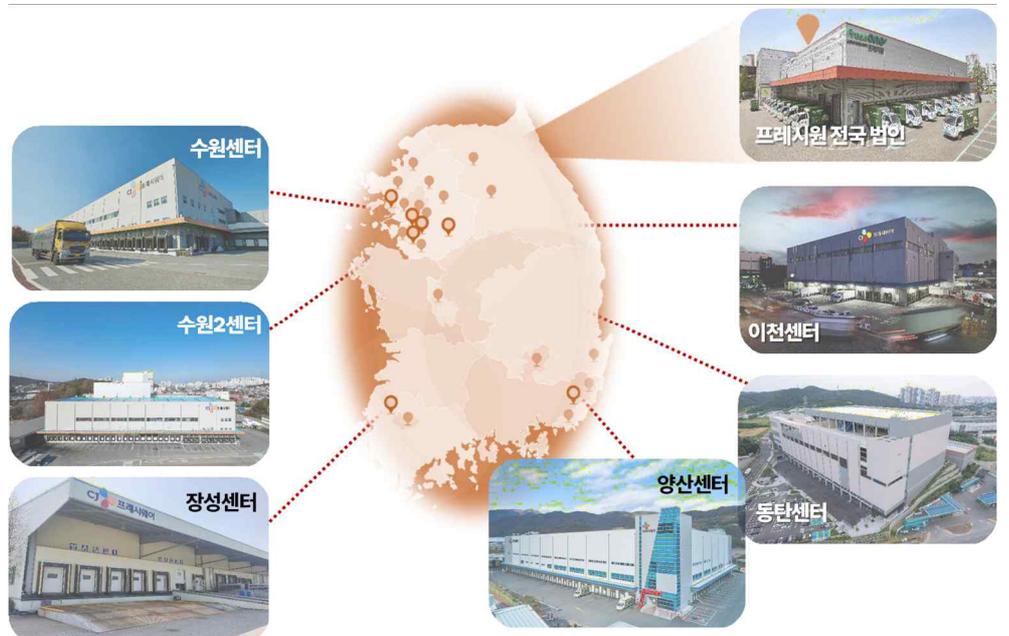
**차별화된 물류 인프라가
동사의 경쟁력**

동사는 업계 최대 규모의 전국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대규모 광역 물류센터로 수원센터, 수원 2센터, 장성센터, 양산센터, 동탄 1센터, 동탄 2센터와 인천센터 등 7곳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프레시원 전국 법인 19곳과 CJ대한통운 등 전국적인 유통망을 통해 식자재를 맞춤 공급할 수 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업계 최고의 콜드체인 물류시스템으로 상품의 품질과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체계적인 물류 프로세스로 최적의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차별화된 전국 물류 인프라를 활용하여 CJ프레시웨이는 대량 식자재를 신선하게 보관하고 고객들에게 주문한 물품을 일일 배송 하고 있다. 또한, B2C를 주로 하는 쿠팡과 달리 식자재를 통합 배송하며, 고객의 냉장고까지 배송한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가진다.

참고로, 동사는 조만간 물류 대형업도 시작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총 매출 규모 1조원의 물류허브센터를 리스로 취득할 계획이다.

CJ프레시웨이의 전국 물류 인프라



자료: CJ프레시웨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1 2023년 실적 Review

**2023년 매출액 3조
742억원(+11.9%YoY), 영업이익
993억원(+1.4%YoY) 기록**

CJ프레시웨이의 2023년 매출액은 3조 7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9% 증가했다.

사업부문별로 보면 매출의 74.4%를 차지하는 식자재유통 부문이 9.2% 증가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했고, 푸드 서비스 부문은 24.4%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총매출액 증가를 견인했다. 식자재유통 부문에서는 급식식자재 유통 부문이 26.5% 증가하며 성장을 견인했고, 푸드서비스 부문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산업체/오피스, 병원/학교 경로가 각각 29.7%, 20.0% 성장했다. 매출 성장의 주요인은 1) 리오프닝 효과가 온기로 반영되고, 2) 푸드서비스 부문에서 2022년과 2023년 신규 수주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동사의 영업이익은 993억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3.2%로 2022년 대비 0.4%p 하락했다. 식자재유통 영업이익률은 2.8%로 전년대비 0.5%p 하락한 반면, 푸드서비스는 4.5%로 0.6%p 상승했다. 식자재 유통 영업이익률 하락과 푸드서비스 영업이익률 상승의 주요인은 매출액 포트폴리오 변화이다. 식자재 유통은 수익성이 높은 외식식자재 유통 비중이, 푸드서비스에서는 계절적 요인으로 수익성이 낮은 레저/컨디션 경로의 매출 비중이 감소했다.

지배주주지분순이익은 545억원으로 전년대비 11.0% 증가했다.

2 2024년 3분기 실적 Review

**2024년 3분기 누적 매출액
2조 3,746억원(+3.9%YoY),
영업이익 689억원(-8.1%YoY)
기록**

CJ프레시웨이의 2024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2조 3,74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9%증가했다.

푸드서비스 부문 매출액은 5,86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1% 증가하며, 총매출액 증가를 견인했다. 식자재유통 부문 매출액은 2.7% 증가에 그쳤다. 급식식자재 부문은 9.0% 증가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외식식자재 부문은 2.9% 감소하며 식자재유통 부문의 성장폭이 축소되었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수 경기가 악화되며 외식식자재 부문 매출액이 감소되었다.

동사의 영업이익은 68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1%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2.9%로 전년동기 대비 0.4%p 하락했다. 영업이익률 하락은 1) 경기 둔화로 인한 일반 레스토랑 업황 부진, 2) 프랜차이즈항 매출 비중 확대에 따른 마진 감소와 3) 병원 파업 여파 때문이다.

영업외손실로 공정위의 과징금 245억원이 반영되며 지배주주지분 순이익은 8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0.3% 급감했다.

2024년 실적 전망

2024년 매출액
3조 1,839억원(+3.6%YoY),
영업이익 949억원(-4.4%YoY)
전망

당사는 CJ프레시웨이의 2024년 매출액을 3조 1,839억원(+3.6%YoY), 영업이익을 949억원(-4.4%YoY), 영업이익률을 3.0%(-0.2%pYoY)로 추정한다.

경기 불황과 고물가로 외식식자재 유통 매출액 부진은 이어지면서 식자재유통 매출액 성장을 둔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1) 병원 파업이 장기화되며 급식 수요 감소, 2) 동사의 수익성 위주의 선별적 수주 전략으로 푸드서비스 부분 매출액도 9.3%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이익률은 1) 수익성이 높은 외식식자재 부분의 매출액 감소와 2) 인건비 등 판관비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0.2%p 하락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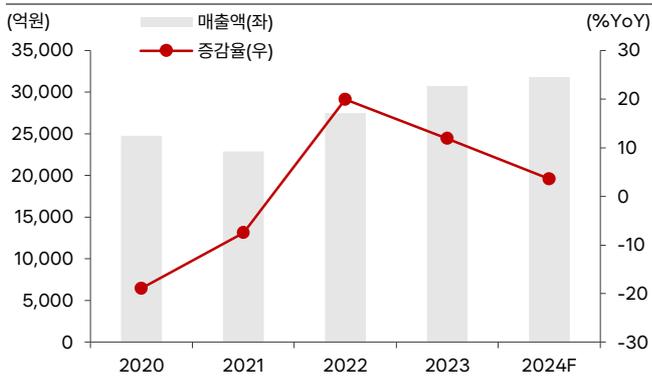
실적 전망

(단위: 억원, %)

	2020	2021	2022	2023	2024F
매출액	24,785	22,914	27,477	30,742	31,839
식자재유통	19,651	17,526	20,931	22,859	23,339
푸드서비스	4,360	4,555	5,836	7,260	7,935
기타	772	833	710	623	565
영업이익	-35	556	978	993	949
당기순이익	-393	267	491	545	306
%YoY					
매출액	-18.9	-7.5	19.9	11.9	3.6
영업이익	적전	흑전	75.9	1.4	-4.4
당기순이익	적전	흑전	83.9	11.0	-43.9
영업이익률	-0.1	2.4	3.6	3.2	3.0
당기순이익률	-1.6	1.2	1.8	1.8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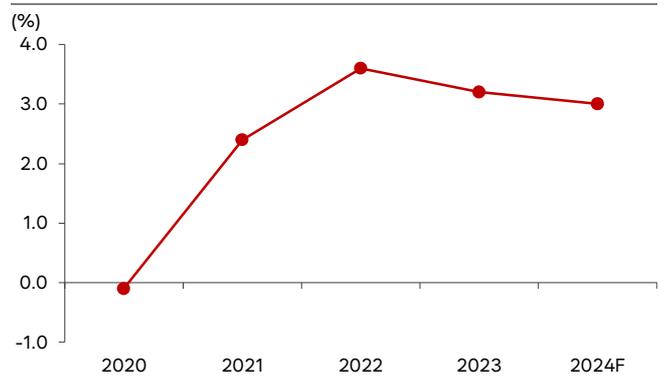
자료: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CJ프레시웨이의 매출액과 증감율 추이 및 전망



자료: CJ프레시웨이,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CJ프레시웨이의 영업이익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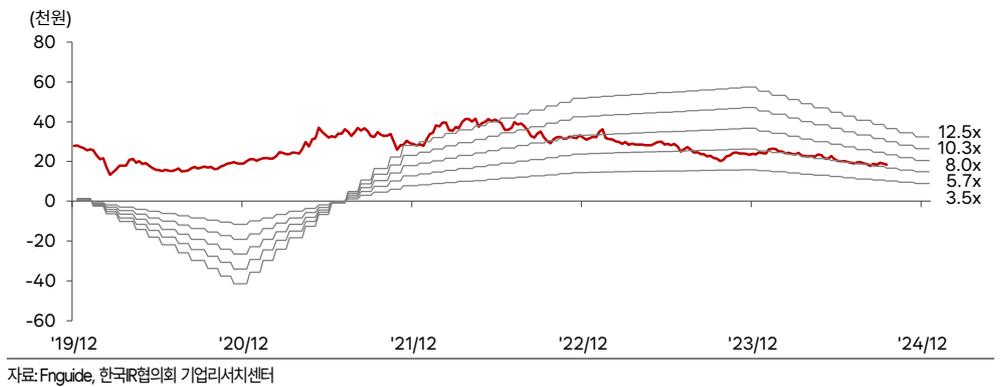
자료: CJ프레시웨이,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2024년 CJ프레시웨이 PER은
6.6배로 2020년 이후
밸류에이션 중하단 위치**

CJ프레시웨이의 2024년 PER은 6.6배이다. 코로나 직후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한 2020년 이후 동사의 주가는 PER Band 3.9배에서 14.7배 사이에서 움직였다. 이를 감안 시, 동사의 주가는 밸류에이션 중하단에 위치해 있다. 참고로, PBR 측면에서는 밸류에이션 하단에 있다. 현재 동사의 PBR은 0.5배이고, 2019년 이후 동사의 주가는 PBR band 0.5배에서 2.1배 사이에서 움직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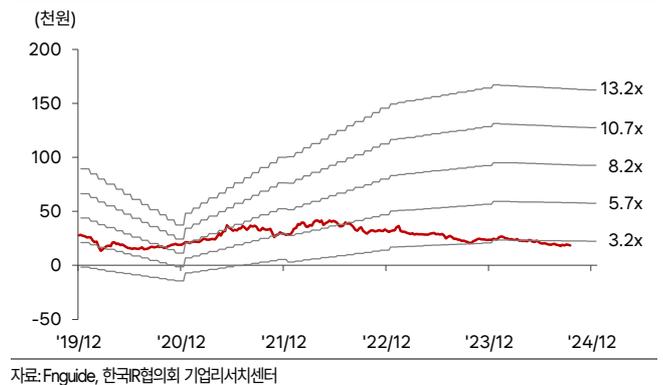
CJ프레시웨이의 PER Band



CJ프레시웨이의 PBR Band



CJ프레시웨이의 EV/EBITDA Band



**2024년 PER 기준으로 경쟁사
대비 밸류에이션은 높은 편**

CJ프레시웨이는 식자재유통과 단체급식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동사의 경쟁사로는 현대그린푸드와 신세계푸드가 있다.

현대그린푸드는 2023년 9월 인적분할을 통해 설립되었다. 동사의 사업부문은 푸드서비스 부문(47.2%, 2024년 3분기 누적 매출액 기준), 공산품과 생식품 유통사업 부문(15.4%), 식자재 유통사업 부문(25.9%)와 기타(외식사업 및 소매 유통 등)(11.6%)로 구성된다. 현대그린푸드의 경쟁력은 현대그룹 내에서 안정적인 단체 급식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세계푸드는 1979년 설립되었다. 당사는 자체브랜드 HMR 상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외식 가맹사업, 베이커리 사업, 단체급식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4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동사의 매출액의 61%는 식자재유통, HMR 등을 운영하는 유통서비스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고, 38%는 베이커리, 급식, 외식사업을 운영하는 식품 서비스 부문에서, 1%는 물류 등 기타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CJ프레시웨이와 경쟁사들의 2024년 PER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비교 시, CJ프레시웨이는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황이다. CJ프레시웨이의 PER은 6.6배인 반면, 현대그린푸드와 신세계푸드의 PER은 4.7배와 4.9배이기 때문이다.

CJ프레시웨이와 주요 경쟁사의 재무지표 및 밸류에이션 지표 비교

		CJ 프레시웨이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주가(원)		16,980	14,400	31,050
시가총액 (억원)		2,016	4,879	1,202
자산총계 (억원)	2021	12,165	-	8,795
	2022	14,847	-	9,039
	2023	13,747	8,803	8,755
	2024E	14,028	9,470	8,801
자본총계 (억원)	2021	2,459	-	2,848
	2022	3,078	-	2,921
	2023	2,896	6,283	2,899
	2024E	4,577	7,020	3,017
매출액 (억원)	2021	22,914	-	13,293
	2022	27,477	-	14,113
	2023	30,742	18,270	14,889
	2024E	31,839	22,860	15,597
영업이익(억원)	2021	556	-	300
	2022	978	-	206
	2023	993	648	264
	2024E	949	1,140	314
영업이익률(%)	2021	2.4	-	2.3
	2022	3.6	-	1.5
	2023	3.2	3.6	1.8
	2024E	3.0	5.0	2.0
지배당기순이익(억원)	2021	267	-	24
	2022	491	-	-54
	2023	545	393	106
	2024E	306	840	183
ROE(%)	2021	12.3	-	0.9
	2022	17.7	-	-1.9
	2023	18.2	6.3	3.7
	2024E	9.2	12.6	6.2
PER(배)	2021	12.8	-	131.2
	2022	7.7	-	-34.6
	2023	5.2	8.3	14.4
	2024E	6.6	4.7	4.9
PBR(배)	2021	1.4	-	1.1
	2022	1.2	-	0.6
	2023	1.0	0.6	0.5
	2024E	0.5	0.7	0.4
PSR(배)	2021	0.2	-	0.2
	2022	0.1	-	0.1
	2023	0.1	0.2	0.1
	2024E	0.1	0.2	0.1
배당수익률(%)	2021	1.0	-	0.9
	2022	1.1	-	1.6
	2023	1.9	2.8	1.9

주: 주가, 시가총액은 2024년 12월 10일 기준, 현대그린푸드 2023년 3월 인적분할하여 신설법인, CJ프레시웨이의 2024년 추정치는 당사 추정치 기준, 현대그린푸드와 신세계푸드는 시장 컨센서스 기준, 자료: Fnguid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
**리스크 요인은 외식식자재 유통
매출액의 감소 지속 개연성**

CJ프레시웨이의 리스크 요인은 외식식자재 유통 매출액의 감소가 지속될 개연성이다.

한은은 11월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4년과 2025년 경제성장률을 2.2%와 1.9%로 전망했다. 이는 기존 8월 보고서 때 추정치 대비 경제성장률을 0.2%p씩 낮춘 것이다. 올해 부진했던 민간 소비가 내년에는 올해대비 성장률이 다소 높아질 것(2024년 1.2% → 2025년 2.0%)으로 예상했으나, 주력 업종에서의 주요국과의 경쟁 심화,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대통령 탄핵 이슈가 반영되지 않은 전망치로 이를 반영 시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더욱 둔화될 개연성이 크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올해 부진했던 외식 경기가 내년도에서 추세가 이어지며, CJ프레시웨이 매출액의 34.7%(2024년 3분기 누적 기준)를 차지하는 외식식자재 유통 매출액의 감소가 이어질 수 있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F
매출액	24,785	22,914	27,477	30,742	31,839
증가율(%)	-18.9	-7.5	19.9	11.9	3.6
매출원가	21,308	18,887	22,360	25,000	25,892
매출원가율(%)	86.0	82.4	81.4	81.3	81.3
매출총이익	3,477	4,027	5,117	5,743	5,948
매출이익률(%)	14.0	17.6	18.6	18.7	18.7
판매관리비	3,513	3,471	4,139	4,750	4,999
판매비율(%)	14.2	15.1	15.1	15.5	15.7
EBITDA	615	1,120	1,560	1,705	1,661
EBITDA 이익률(%)	2.5	4.9	5.7	5.5	5.2
증가율(%)	-45.3	82.2	39.2	9.3	-2.6
영업이익	-35	556	978	993	949
영업이익률(%)	-0.1	2.4	3.6	3.2	3.0
증가율(%)	적전	흑전	75.9	1.4	-4.4
영업외손익	-442	-243	-288	-248	-485
금융수익	164	88	325	316	246
금융비용	341	212	452	460	409
기타영업외손익	-265	-119	-160	-105	-322
중속/관계기업관련손익	-7	-0	-2	-16	-16
세전계속사업이익	-485	314	689	728	448
증가율(%)	적전	흑전	119.5	5.7	-38.5
법인세비용	-60	3	166	131	112
계속사업이익	-425	311	522	597	336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425	311	522	597	336
당기순이익률(%)	-1.7	1.4	1.9	1.9	1.1
증가율(%)	적전	흑전	68.0	14.3	-43.8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393	267	491	545	306

현금흐름표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263	1,406	1,236	2,184	438
당기순이익	-425	311	522	597	336
유형자산 상각비	526	500	525	649	643
무형자산 상각비	125	64	56	62	69
외환손익	0	3	0	23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738	413	-205	479	-729
기타	299	115	338	374	119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528	-342	-1,077	-707	-450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248	160	-360	77	123
유형자산의 감소	19	53	29	22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419	-164	-366	-441	-750
기타	-376	-391	-380	-365	177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86	-394	184	-2,705	-554
차입금의 증가(감소)	-350	88	657	-904	465
사채의증가(감소)	298	0	27	-456	-800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	-74	-56	-89	-90	-53
기타	40	-426	-411	-1,255	-166
기타현금흐름	-5	12	2	2	593
현금의증가(감소)	643	682	346	-1,226	27
기초현금	213	856	1,537	1,883	658
기말현금	856	1,537	1,883	658	685

재무상태표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F
유동자산	4,311	5,022	6,740	5,408	5,900
현금성자산	856	1,537	1,883	658	685
단기투자자산	70	41	62	78	80
매출채권	2,008	2,163	2,779	3,060	3,169
재고자산	1,202	1,152	1,818	1,380	1,725
기타유동자산	175	128	198	232	241
비유동자산	6,916	7,143	8,108	8,340	8,128
유형자산	3,600	4,006	4,270	4,394	4,501
무형자산	855	759	748	870	906
투자자산	349	546	1,210	1,261	1,154
기타비유동자산	2,112	1,832	1,880	1,815	1,567
자산총계	11,228	12,165	14,847	13,747	14,028
유동부채	4,421	6,078	7,956	6,777	6,854
단기차입금	790	909	1,487	549	949
매입채무	2,368	2,671	3,522	4,019	3,617
기타유동부채	1,263	2,498	2,947	2,209	2,288
비유동부채	3,944	2,660	2,850	3,275	2,597
사채	1,797	799	998	1,377	577
장기차입금	8	1	0	30	80
기타비유동부채	2,139	1,860	1,852	1,868	1,940
부채총계	8,365	8,738	10,807	10,052	9,451
지배주주지분	1,880	2,459	3,078	2,896	3,749
자본금	119	119	119	119	119
자본잉여금	865	751	732	709	709
자본조정 등	0	0	-42	-42	-42
기타포괄이익누계액	438	880	1,064	1,084	1,084
이익잉여금	-60	191	645	1,027	1,280
자본총계	2,862	3,426	4,041	3,695	4,577

주요투자지표

	2020	2021	2022	2023	2024F
P/E(배)	N/A	12.8	7.7	5.2	6.6
P/B(배)	1.2	1.4	1.2	1.0	0.5
P/S(배)	0.1	0.1	0.1	0.1	0.1
EV/EBITDA(배)	11.3	6.6	5.2	3.9	3.3
배당수익률(%)	0.0	1.0	1.1	1.9	2.7
EPS(원)	-3,307	2,245	4,136	4,589	2,581
BPS(원)	15,839	20,715	25,929	24,396	31,580
SPS(원)	208,778	193,018	231,451	258,958	268,197
DPS(원)	0	300	350	450	450
수익성(%)					
ROE	-20.2	12.3	17.7	18.2	9.2
ROA	-3.7	2.7	3.9	4.2	2.4
ROIC	-2.0	14.9	18.4	17.1	15.5
안정성(%)					
유동비율	97.5	82.6	84.7	79.8	86.1
부채비율	292.3	255.0	267.5	272.1	206.5
순차입금비율	129.7	86.8	83.5	82.6	58.7
이자보상배율	-0.2	4.3	6.1	4.8	5.7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2.2	2.0	2.0	2.2	2.3
매출채권회전율	11.0	11.0	11.1	10.5	10.2
재고자산회전율	15.9	19.5	18.5	19.2	20.5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들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 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CJ프레시웨이	X	X	X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시가총액 5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무상 보고서로, 투자자들에게 국내 중소기업 상장사에 대한 양질의 투자 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소중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소중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